

건강 칼럼

결핵의 증상

**일** 반적으로 폐결핵 환자의 70~80% 정도가 기침과 객담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핵 증상은 감기나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나타나므로 환자나 의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만성폐쇄성 폐질환 또는 다른 호흡기 질환의 증상 등으로 취급돼 발견되기가 어렵다.

결핵은 발병하는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신장에서 발병하는 결핵이면 혈뇨와 경우에 따라서 배뇨곤란, 빈뇨 등의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오줌에 고름이 보이기도 한다. 척추 결핵이면 허리 통증이, 결핵성 뇌막염이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핵성 흉막염일 때는 흉통, 기침, 호흡곤란, 발열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장결핵일 때는 전신증상 외에 복통, 설사, 헛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림프절 결핵은 전신 증상을 심하지 않고 목 주위의 림프절이 비대해져 혹같이 만져진다.

결핵성 수막염은 주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어느 연령에서나 올 수 있으며 두통, 구토, 발열, 의식혼탁, 경련, 혼수상태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속립성 결핵은 대량의 결핵균이 단기간에 혈액 속에 들어가



김 이 곤

구원하의원 원장

전신에 퍼졌을 때 일어나며, 증상은 패혈증과 비슷하고, 혈행성 전파를 나타내는 결핵 가운데 가장 악성에 속한다.

◆ 발병 초기 폐결핵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폐결핵 초기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다가 좀 더 진행이 되면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하게 되고 점차 진행하면서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온다. 기침은 감기나 기관지염, 흡연 등 다른 호흡기 질환의 흔한 증상이지만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결핵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객혈

객혈이란 객담에서 피가 나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환자들이 이를 보고 놀라서 진찰받는 경우가 많다. 결핵 병변 부위에 혈관

이 있으면 염증에 의해 터지거나 기관지벽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게 된다. 병변이 심하지 않더라도 병변내 큰 혈관 혹은 기관지 동맥이 있어 터지면 대량 객혈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중증의 환자라도 객혈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결핵환자는 가래에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이다.

▲무력감과 미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무력감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적인 증상이다.

▲발열

결핵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 몸살과 달리 39도, 40도에 이르는 고열을 나타내지 않는다. 대신 오후가 되면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정도의 미열이 발생했다가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전형적인 결핵환자는 잠을 잘 때 식은땀을 흘려 베개가 젖을 정도가 되기도 한다.

◆ 진행된 폐결핵의 증상

초기에 폐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폐 곳곳에 육아종과 공동이 생기면서 폐가 망가진다. 이는 폐의 호흡기능을 약화시켜 나중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을 침범해 결핵성 흉막염을 일으키면 폐조직이 있어야 할 공간에 고름·염증성 액체가 차면서 옆구리 부위의 통증·호흡곤란이 심해지기도 한다.

호흡곤란이 발생할 정도로 폐가 심하게 망가진 경우는 이후에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받더라도 이미 파괴된 폐조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핵으로 인해 폐기능이 나빠지기 전에 결핵을 진단 받고 초기에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이 두렵다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어마어마하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백만 명을 넘은 유럽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하루에 5만2천 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직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스페인 총리에 따르면 실제 감염자가 3백만 명이라는 소식이 있다. 이탈리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하루 2만5천 명 꼴로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대재앙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8만 명을 훨씬 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체코 등 유럽 나라들의 경우를 언급하고 러시아를 언급하고 인구 대국 인도까지 언급하려면 지면이 모자란다. 지금은 지난 불철 발병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때이다. 한국의 경우 그런 나라들보다 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이달 들어 내내 강조해서 말하고 있거나 지금은 코로나 소강상태가 아니다. 전복의 경우도 이를 사들 잠잠하다가도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요양원과 학원 등지에서 감염

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보통 불안한 게 아니다.

지금은 긴장하고 경계하는 가운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이다. 다시 또 말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건강해보이는 사람이란도 보균 상태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해진듯 한데 그래서 안된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한 단계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지하 술집이나 지하 노래방 같은 밀폐공간은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공간이라도 환기가 안되는 장소에서는 만남을 조심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런 때는 사람 만남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이다. 거듭 강조하거나 코로나 감염 예방은 거리두기가 답이다. 서로 마주치지 않는 경우라도 보균자와 가깝게 있으면 감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따라서 사람들로 북비는 장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도 가까운 자리에서 호흡을 함께 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이다. 방역 당국의 말대로 2미터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실천해 건강을 지켜야겠다.

발굴 프로젝트 추진에 힘내야 한다

발굴한 프로젝트에 애정과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추진이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매년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뒤처지고 있기에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이다. 도민에게 약속한대로 제육 찾기에 성공하려면 전복도가 좀 더 다부져야 한다. 도민들이 볼 때 제육 찾기는 고사하고 제육 지키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타 지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리며 미래 비전을 위해 뛰고 있는데 이쪽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복도는 발굴한 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힘내야 한다. 지역발전은 도민들이 바라보는 바 전복도의 절박한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전복의 경우 지난 십수년 동안 제육 찾기는 고사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도민들은 심사가 괴롭다. 도시사를 비롯해 고위 브레인은 도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복도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한창에 뛰어아왔다. 뉴딜의 성공을 위

해 국비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복도는 도민의 공동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제육 찾기는 제육 지키기이든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결코 제육 찾기도 아니고 제육 지키기도 아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전복 발전의 방향은 분명하다. 전복도는 매사에 제육을 미리 파악하고 제육 지키기 대상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전복도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제육을 제대로 옮겨주는 게 미래 비전에 힘을 보태는 거라는 것을 말이다.

전복도는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심해야 한다. 제육 찾기에 제육 지키기는 도민을 상대로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전복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그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그 변화된 면면들도 초라하기 그지 없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거주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이유를 전복도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복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론에 입각해 전복의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추진에 힘내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경비원도 막지 못하는 아이들의 호기심



25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입장이 제한된 두세라 축제가 열린 가운데 한 경비원이 가림막 사이로 축제장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화려한 핑피르와 많은 사람이 몰리는 힌두교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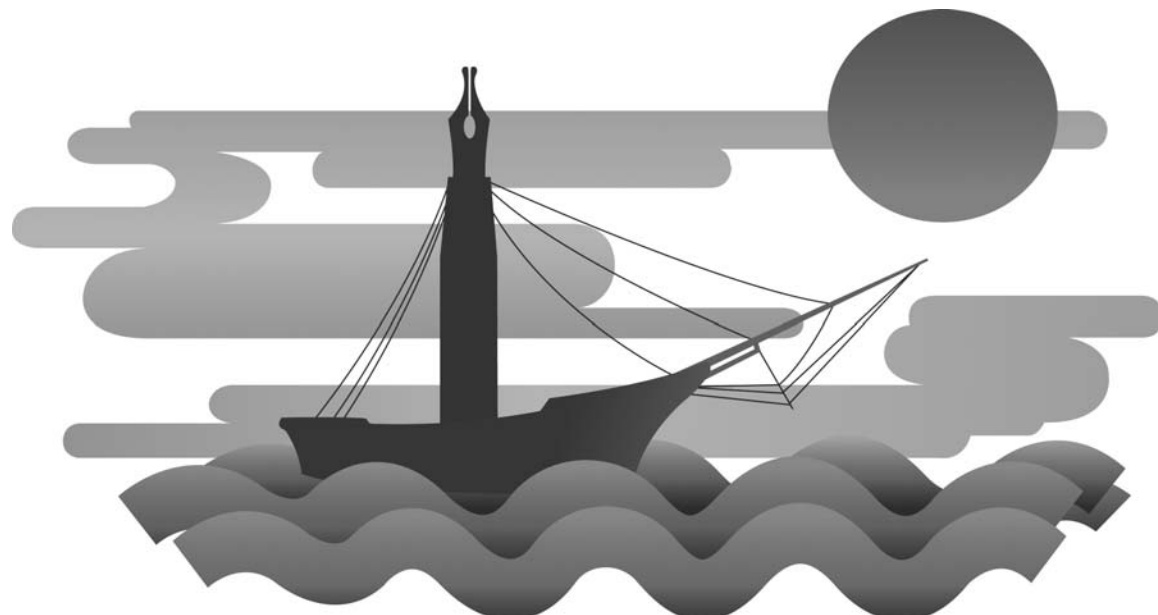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할로윈 맞아 잭오랜턴 조각하는 조각가



24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글렌코에 있는 시카고 식물원에서 할로윈을 앞두고 '1000개의 잭오랜턴'(Jack-O'-Lantern) 행사에 한 조각가 호박등을 호박을 조각하고 있다. 이 식물원에서는 손으로 만든 최소 1000개의 호박등이 할로윈까지 전시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복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